

# 불티나는 '으뜸가전 환급'...3차 추경으로 불 지핀다

### 시행 3개월 여만에 환급 요청 100만...예산 1400억 소진 3차 추경 1500억 추가...의류건조기도 대상 품목에 추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으뜸가전 환급' 사업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1차 추가 경정 예산 1500억원을 일찌감치 소진한 가운데, 정부는 3차 추경으로 15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핀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으뜸가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 신청 건수는 114만6576건이다. 지난 3월23일부터 시작된 이래 3개월 여만에 10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신청 금액도 총 1430억원에 달해 1차 추경 때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됐던 1500억원을 거의 다 소진했다.

품목 별 신청 현황을 보면 세탁기가 23만7930건(20.8%)으로 가장 많고 전기밥솥(19만461건·16.6%), 냉장고(18만1570건·15.8%)가 뒤를 잇는다. 환급 금액으로 보면 제품별 단가가 높은 냉장고가 353

억원(24.7%)로 가장 많고 세탁기(315억원), 에어컨(248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으뜸가전 환급 사업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1차 추가 경정 예산 1500억원을 일찌감치 소진한 가운데, 정부는 3차 추경으로 150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핀다는 방침이다.

8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으뜸가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환급 신청 건수는 114만6576건이다. 지난 3월23일부터 시작된 이래 3개월 여만에 10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신청 금액도 총 1430억원에 달해 1차 추경 때 해당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됐던 1500억원을 거의 다 소진했다.

품목 별 신청 현황을 보면 세탁기가 23만7930건(20.8%)으로 가장 많고 전기밥솥(19만461건·16.6%), 냉장고(18만1570건·15.8%)가 뒤를 잇는다. 환급 금액으로 보면 제품별 단가가 높은 냉장고가 3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30만원'의 환급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가능한데다, '전력 효율'이 보장된 가전 제품의 구매로 전기요금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다.

경기 불황에 울상을 짓던 제조 기업들도 해당 사업을 통해 전년 대비 2배 가량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는 등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며 내수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으뜸가전 환급' 사업을 연계해 추가할인과 특별포인트, 상품권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 것도 적지 않은 효과를 봤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에는 소관 부처인 산업부의 성운보 장관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으뜸가전 환급 사업을 설명하고 제품 판매에 나서며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개월 간 뜨거운 반응을 실감한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다시금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지난 3일 통과된 3차 추경에서 으뜸가전 환급 사업에 추가된 예산은 1500억원이다.

여기에 환급대상 품목도 의류건조기가 추가돼 기존 10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의류건조기는 환급 대상 품목에 포함된 6일 첫날부터 43건의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서 뜨거운 반응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에 따른 으뜸가전

제품의 보급 확대에 약 3만2000가구(4인 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인 120GWh의 연간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차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와 지원 규모와 대상 품목이 늘어나면서 환급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호 기자

## 코로나 확진 급증한 광주·호남,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 ↑

동행세일 행사 힘 입어 수도권·제주도는 5주 연속 회복세

최근 광주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장 300개, 전통시장 220개 내외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와 호남의 매출 감소폭이 지난주에 비해 다소 늘었다고 8일 밝혔다.

광주·호남 지역은 34.5%로 전주에 비

해 3.7%p 감소폭이 늘었다. 강원 역시 30.8%로 감소폭이 7.5%p 확대됐다.

다만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동행세일의 나비효과로 타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은 30.4%, 서울 35.0%, 제주 27.5%로 각각 13.7%p, 9.7%p, 5.0%p 매출액 감소폭이 줄었다.

업종별로는 가공식품·종합소매업이 21.9%로 전 주보다 9.6%p 회복했다. 농·축·수산물도 3.4%p 나아졌다. 동행

세일 기간 동안 가정 식료품·생필품 등에 대해 동네슈퍼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참여 중인 50개 전통시장, 750개 상점을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매출액과 방문 고객 수는 행사 직전 이었던 19~25일과 비교해 각각 7.8%,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행세일 행사의 마지막 이번 주에도 동행세일에 참여하는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등을 많이 찾아 주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국내 30대 그룹 순위 10년새 지각변동

삼성, '부동의 1위' 유지  
카카오 매출 9067% 급증  
농협·미래에셋·현대백 등  
9곳 30대 그룹 신규 진입

공정자산 규모 100조원 그룹 대열에 합류했다.

7~10위는 10년 전에 비해 변동이 컸다. 한화가 13위에서 7위로 뛰어올랐고 농협이 10위로 신규 진입했다. GS와 현대중공업은 각각 한 계단씩 떨어진 8위와 9위를 기록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성공하면 7위로 올라서게 된다.

10년 전 30위 밖에서 순위 상승 등을 통해 30대 그룹에 새로 이름을 올린 곳은 농협을 비롯해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카카오, 하림, KT&G 등이다.

반면 STX, DB, 현대, KCC, 한진중공업, 한국GM, 동국제강, 현대건설 등은 인수합병 및 실적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 등으로 30대 그룹에서 탈락했다.

매출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곳은 10년 전 삼성(222조원) 한 곳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삼성(315조원)과 현대차(185조원), SK(160조원), LG(122조원) 등 4곳으로 늘었다.

10년 전보다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곳은 카카오로 466억원에서 4조2585억원으로 9066.9% 급증했다. 카카오의 경우 보고서 제출을 시작한 2012년과 비교했으며, 2014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하면서 매출 및 자산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 모바일 메신저 사업과 포털 사업, 모바일 게임, 유료 콘텐츠, 모바일티, 커머스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을 바탕으로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뉴시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코로나19 막자' 방역활동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8일 자체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롯데백 광주점 제공)

##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재추진...1년 납부→실업급여 지급

14개 산재보험 직종 유력

정부가 보험설계사,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재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력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이미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도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 말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올 5월20일 국회에서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만 통과됐다.

이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 입법 형태로 재추진을 결정했다.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9월이면 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부 입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고, 구체적인 적용 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자세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유아인 타는 '테슬라' 잘나가네 지난달 2827대 팔려 '역대 최대'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한국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고 8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의 한국 시장 판매량은 2827대로 월별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테슬라 '모델3'는 국내 수입차 중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다음으로 인기 순위 2위에 올랐다. 테슬라가 BMW 5시리즈, 아우디 A6을 넘어선 것.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테슬라 모델3를 주문한 다른 4000~5000명의 한국 구매자들도 배송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대부분은 빨라도 9월이 돼야 차량을 인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테슬라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테슬라 모델3에 1243만원 가량 '후한' 보조금을 책정한 것도

있지만 우선 첨단 기술에 대한 동경 때문이다. 특히 IT 등 기술산업 종사자들이 테슬라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배우 유아인씨가 테슬라 모델X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고 장을 보러 가는 장면이 전파를 탄 후 테슬라 주문량이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